

'여가선용의 장' 탈바꿈

익산시 국민생활관, 시민친화적 문화·체육 거점공간 변모... 오늘부터 전 시설 개방

익산시 국민생활관이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국민생활관은 2일 준공일에 맞춰 개관식을 갖고 3일부터 전 시설을 본격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일 개관식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전북도의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관내 기관·단체장, 수형 등 프로그램 대표자 어린이집 대표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추어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전 축



하공연 경과보고, 기념사, 시설 라운딩 등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시는 공사에 앞서 올해 1월에 탁구협회 어린이집 연합회장, 강사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2월에서 7월까지 설계용역 관련 전라북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2일에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다. 총 공사비는 국비12.5억, 시비12.5억 총 25억이며 지하2층부터 3층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였다. 주요내용은 ▲지하2층 보일러 운수 탱크 변압기 여과기 등 각종 기계 및 전기시설 교체 등 ▲지하층 수영장 바닥 타일 및 천정 전면 교체, 남녀 탈의실 및 샤워장 비닐계 타일, 수전 등 교체 등 ▲지상층 검도장 바닥 샌딩처리, 남녀 탈의실 및 샤워장 보수 ▲지상층 소극장 바닥 및 벽면 소재 교체, 무대확장, 대기실 신설, 음향시설 보강 등, 휴게실 신설, 탁구장 바닥 샌딩처리, 관람석 신설, 남자샤워장 및 탈의실 정비 등 ▲지상층 헬스장 남녀 샤워장 및 탈의실 보수 등으로 이루어졌다. /익산=이특훈 기자

서부시대 열어가는 모현동행정복지센터, 개청 1주년

익산시 행정 중심심으로 발돋움

익산시 모현동행정복지센터가 개청 1주년을 맞아 서부권역 행정1번지로 우뚝 선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신청사 개청식을 진행하지 못했던 익산시 모현동은 개청 1주년을 맞아 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100여명 모현동민과 함께 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익산시 행정중심지, 육아현의 365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모현동 초대 동장님이신 김승자님과 관내 경로당 회장님중 최고령 남영회 회장님, 모현동민중 익산의 숨은보석 선발자, 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 관내 종교계 대표자분

이 참석했다. 이번 개청 1주년 기념 행사로 그간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모현동민 10명과 대한민국 제5대 국새장인 한상대남에 대한 감사패 전달 등 시상식, 개청 1년을 축하하는 기념사와 축사, 기념촬영과 주민들을 위한 공연 등으로 진행했다. 모현동은 각종 문화와 편의시설 등 공공기관이 들어서면서 익산의 행정 문화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2006년 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현재 인구 4만여명으로 익산시 29개 읍면동 중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아부터 노령층까지 다양한 세대의 행정·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줄 서부

권역다목적체육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익산평생학습관과 더불어 모현도서관, 배산공원까지 문화 기반시설이 탄탄한 시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 직매장 등이 자리잡고 있고 가족 커뮤니티 공간인 가족센터 건립 예정 등 편의 시설 등이 더욱 확대돼 미래 도시상을 보여주는 곳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모현동 개청 1주년을 맞이해 모현동의 과거와 현재의 발전상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며 "모현동 개청에 힘써 주신 모현동민의 마음을 모아 미래를 이끌어가는 모현동 보다 나은 익산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익산=이특훈 기자

익산시 소통행정 서비스 만족도 '우수'

익산시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을 위한 소통창구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시는 올해 실시한 친절행정 만족도 조사 결과 92.1점을 받으며 높은 만족도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

번 조사는 (주)에스이에스에이카데미가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설문지를 활용한 1:1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익산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 1천명이다. 앞서 시는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친절·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

다.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함께 친절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친절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해당 부서와 직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친절 공무원을 해마다 5명씩 선정해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친절 명예의 전당 게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부서에는 포상금을 제공한다. /익산=이특훈 기자



익산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수향토기업을 선정했다.

'우수향토기업 선정'

익산시,기원전자 등 5곳... 지원사업 신청 시 기점 등 추가 혜택 지원

익산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수향토기업을 선정했다.

시는 2일 익산시청 회의실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향토기업 5곳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우수향토기업은 (주)기원전자(대표 방순원), (주)해물(대표 기해립), (주)효진산업(대표 형우생), 예순진드림(대표 김재근), 선화식품 주식회사(대표 백인수) 등 5곳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서와 현관 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0.5% 추가 이자 차액 보전, 지원사업 신청 시 기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돼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인과 근로자의 사기

를 북돋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선정은 업체 경력 10년 이상의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대표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우수 향토기업으로 선정돼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역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수향토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특훈 기자

공원 안에 섬, 내초공원 새섬숲 조성사업 준공

군산시는 내초공원 새섬숲 조성사업'을 완료해 기존 조성된 공원과 어울린 누구나 가보고 싶은 수생태 공원을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 전 내초공원 습지에는 관리되지 않은 갈대와 풀숲이 우거져 수차례 화재가 발생하고 데크가 썩어 안전사고 및 우범화 우려로 인접마을 주민들로부터 정비 요구가 잦은 공원이었다. 이번 조성 사업에는 국비 7.5억원을 포함 총 13억원이 투입됐으며, 왕벚나무, 배롱나무, 동백나무 등 화목류와 수생태계를 고려한 왕버들, 계수나무, 수생 초화류 등 총 56종 2만4,034본을 심었다.

특히 탁 트인 광장과 공원 내 물길을 연결해 인공섬을 만들고 섬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목교를 설치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주차장 정비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시는 내년에도 새들하브숲 및 중앙광장 경관숲, 해방동 희망숲 등 방치된 공간이 지역주민의 그린힐링을 책임지는 숲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볼거리도 놓치지 않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숲을 늘려가겠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 통

제38회 전북자동차 추계포럼 개최

미래자동차와 관련해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포럼이 군산에서 열리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에서 제38회 전북자동차 추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사)전북자동차포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군산시장, 군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기업체 대표, 산학연관 관계자 및 전북자동차포럼 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재관 본부장은 "지속주행 기술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은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AI·빅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미래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모범음식점 57개소 지정

군산시는 위생 및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음식점 57개소(신규 3, 재지정 54)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날 신규 지정업소 지정증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좋은 식단 이행,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2021년 신규 지정업소는 3개소로 보배밥상(수송동), 명륜진사갈비 조촌점(경암동), 매주육일(조촌동)이며, 재지정사를 통해 재지정 된 업소는 54개소다.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시 홈페이지 홍보 및 홍보 책자 제작, 각종 행사시 이용·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